

# 이지형

## <사회적 청소년기를 바탕으로 한 창작과정>

### 인형작업자의 창작과정에 미치는 영향

#### :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타자'를

#### 중심으로>

#### 연극

314(목)~316(토) 목금 8시 / 토 3시

쇼케이스 80분

\*아티스트 토크 315(금), 316(토) 공연 후

아티스트 토크는 두산아트센터 팟캐스트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www.podbang.com/ch/7508

#### 연출노트

##### <사회적 청소년기>

우리 인간은 모두 각자의 인생에서 매 순간 크고 작은 고민과 선택으로 결과를 마주하는 주체자로 살아간다. 그리고 이 선택에 따른 결과로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 성장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성공적일 수는 없다. 이를 위해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실패를 포함한 안전한 경험을 이어간다. 우리는 이러한 성장과정 중에서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고유의 감각과 사고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기도 한다.

'사회에서 규정한 청소년기에서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온전한 인간(성인)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번 작업을 시작한다. 창작자는 사회에서 규정한 청소년기를 지났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에서 흔들리고, 고민하는, 완성될 수 없는 성인(인간)의 세대를 청소년기의 연장선인 사회적 청소년기로 바라본다.

##### 작업노트(2020.05.23)

내가 기억하는 나의 청소년기는 비교적 최근의 기억으로 사회에서 말하는 청소년기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 30대를 앞 둔 시점에 많은 고민과 혼란, 선뜻 나아갈 수 없는 시간 속에 뒤늦은 청소년기를 보냈다고 기억한다. 당시 불투명한 내 자신의 상태와 주변에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 속에 매일 밤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천장만 바라보다 잠이 들곤 했다. 매일 같이 '내일 뭐하지?'는 단순히 당장 내일의 할 일에 대한 물음이 아니었다. 내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방향과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사소한 선택, 그 한 걸음조차 내딛을 수 없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참혹했다. 당시 스스로를 적지 않은 나이라고

두산아트랩은 관객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공연 관람 후 온라인 관객 설문에 참여해 주세요.  
작성해주신 의견은 창작자에게 전달되어 작품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관객 설문 바로가기](#)

생각했었던 것일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소속감이 없다는 불안감이 나를 더욱 더 옥죄었다. 좀 더 빠르고 현명한 답을 찾고자 주변 선생님, 선배, 친구를 가리지 않고 만나 조언을 구했다. 하지만 조언은 어디까지나 조언이었을 뿐, 결국 모든 판단과 선택은 오로지 '나의 몫'이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사실 우리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은 분명 이렇게 흔들리는 고민의 시간에 부분도 있다. 하지만 나는 완전한 인간으로 가는 길을 찾고 싶었고, 그에 대한 해답, 정답을 보고 싶었다. 아무도 그 답을 말해줄 수 없고 인도해줄 수 없다면 과연 누가, 무엇이 제시해줄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막연한 상상은 바로 또 다른 '나' 자신이었다. 비현실적인 상황임을 알지만 또 다른 나와의 만남을 상상하고 생각했다. 나와 다른 시간성을 가진 미래의 '나와 과거의 '나 그리고 현재의 내가 만나는 장면을 그려본다. 이 셋이 한자리에 모이면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까. 현재의 '나는' 그토록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 이지형 연출

연극 <기존의 인형들: 인형의 텍스트> <기존의 인형들: 인형의 조건들>  
<기존의 인형들: Post Puppetry> 외  
거리극 <인간장수를 모집합니다> <인간장수> 외

#### 공연 순서

- **관절1. (프롤로그) 나경민**
- **단막극1.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타자')**  
: 19세의 보르헤스(1918년)와 70세의 보르헤스(1969년)
- **관절2 홍승균**
- **단막극2 (셰익스피어 '리어왕의 글로스터')**  
: 서자의 편지에 분노한 글로스터와 회한에 빠진 글로스터
- **관절3. 이지형(안정민)**
- **단막극3. (안정민 '빛, 그림자, 팝콘')**  
: 젊은 이지형(28세)과 중년 이지형(50대) 그리고 현재의 이지형(40세)
- **관절4. (에필로그) 팝콘맨**

#### 작업과정(2024.03.12-)

이번 작업을 진행하면서 유독 인형 자체의 한계에 많이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작업과 달리 인형과 인간이 일대일 구조로 마주해야하고 그 사이에 드라마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인형을 인간(배우)의 손을 빌어 움직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고민은 인형의 한계를 완전히 인정하면서 해소되어 단막극별 인형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형의 한계를 완전히 인정했다는 지점에서 인형 작업자로서의 새로운 고민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무대 위 인형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역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인형 자체의 존재가 무엇인가? 쓰임과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은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 나가야 하는 인형 작업자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 이지형(조음기관) 인형작업에 관한 선언문

1. 인간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2. 인형의 본질은 온전한 죽음을 의미한다.
3. 오브제와 인형은 배우와 동일한 등장인물, 즉 배우이다.
4. 연극의 전환수, 인형의 조종자의 관계에 대해 탐구한다.
5. 하나의 배우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독립적인 여러 개의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6. 관객은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 모두가 다른 개체이다.
7. 인간이 내린 인형의 정의가 아닌, 인형 자체로 독립적인 정의에 대해 탐구한다.

기획 두산아트센터  
연출/각색(단막극1,2) 이지형  
작(단막극3\_ 빛, 그림자, 팝콘) 안정민  
\*나경민 창작자가 개인 독백 형식으로 각색함  
출연 나경민, 홍승균, 인형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추수연  
조연출 곽예진  
드라마리더 배명한  
무대 SHINE\_OD  
조명 윤혜린  
음악 지미세르  
영상 황호규  
기술 김동영 성호근  
무대감독 이보한

[두산아트랩 공연 2025 공모 안내]

일정 2024.6.10~7.10

대상 40세 이하, 한국 국적 예술가,

장르 제한 없음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산아트랩은 4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